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2005년 4/4분기 경제성장률 5.2%
- 두바이油, 사상 최고치 돌파

경영 노트

- 골프에서 배우는 비즈니스 성공 비결

사회 트렌드

- 애니멀 테라피(Animal Therapy)
- 회원제 병원(Subscription Hospital)

저널 브리프

- 국제 투기자금의 위험성 증대

洗心錄

- 과시적 소비

□ 2005년 4/4분기 경제성장률 5.2%

- 2005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의 부진에 따르는 반등 효과로 3/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4.5%보다 0.7%p 상승한 5.2%를 기록함. 이로써 2005년 경제성장률은 4.0%를 기록
 - 국민 계정의 지출 측면에서는 건설투자가 4/4분기에 0.9%의 저성장을 보였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4.6% 및 9.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수출증가율도 11.1%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여 성장을 견인함
 - 이에 따라 2005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5.2%를 기록하였으나, 여기에는 일정 부분 2004년 4/4분기 성장률이 3.3%에 그침에 따르는 기술적 반등 효과도 존재함
-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최근 유가 급등, 금융 시장 불안, 정책 혼란과 같은 경제 교란 요인이 나타나고 있어, 경제 심리 위축에 따르는 '경기 재침체(Double-Dip)'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두바이油, 사상 최고치 돌파

- 2006년 1월 23일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 유가가 60.78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함
 - 2005년 평균 49.37달러 수준이었던 두바이 유가는 2006년에 들어 1월 20일 60달러대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이는 세계 석유 수요 증가 및 국제 정세 시설 부족 등과 같은 공급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라크 핵 문제, 쿠웨이트 정정 불안 등이 겹치며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임
 - 더욱이 국제 원유 시장의 불안 심리를 틈탄 투기 자본들이 가세하고 있어 국제 유가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음
 - ※ 중동산 두바이油는 국내 원유 도입 비중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무역수지 악화, 국내 물가 상승 압력 증대 등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경제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임

□ 골프에서 배우는 비즈니스 성공 비결

- 호주의 프로골퍼 그렉 노먼(Greg Norman)은 소위 ‘노먼 제국(Norman Empire)’이라 불리는 사업 영역을 구축, 비즈니스 성공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음
 - ‘백상어’ 그렉 노먼은 세계 골프대회에서 88승을 거두었고, 331주 동안 세계랭킹 1위를 유지한 호주의 대표적 프로골퍼임
 - 현재는 골프보다 비즈니스에 더 몰두하여, 2005년 중 사업 수익으로만 약 2천만 달러를 벌며 세계 스포츠스타 수입 랭킹 순위 5위를 기록함
 - 노먼의 사업 영역은 골프 코스 설계, 의류, 와인, 부동산, 잔디, GPS(위성위치정보시스템), 레스토랑 등 총 7개 분야로 ‘노먼 제국’으로 불림
- 그렉 노먼의 비즈니스 성공비결을 보면, 그 핵심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임
 - 예를 들어 비즈니스에도 골프에서의 ‘3퍼트’와 같은 난관이 있으며,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게 되면 다음 홀에서 OB(Out of Bounds)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임
 - 또한 경쟁자가 300야드를 날리면 자신은 305야드를 날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하는 등 기업 경영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

< 그렉 노먼의 비즈니스 성공 7계명 >

- ① 비전과 자신감을 가져라. 골프와 경영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 ② 직관을 믿으라.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다해야 한다.
- ③ ‘경쟁자’를 알고 그를 능가하도록 노력하라. 그들이 볼을 300야드를 날리면, 305야드를 날리기 위해 노력한다.
- ④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해저드(hazard: 골프 코스의 장애물)를 직접 돌파할 것인가, 안전하게 돌아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 ⑤ 확률에 의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성공률이 낮은 샷은 아예 시도하지 말고, 위기 때는 거리에 관계없이 가장 자신 있는 클럽을 활용한다.
- ⑥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3퍼트가 있는데 난관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전진한다.
- ⑦ 브랜드 마케팅 방법을 활용하고, 이익은 재투자해 성장을 추구하라.

□ 애니멀 테라피(Animal therapy)

- 일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들과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 치료하기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이른바 ‘애니멀 테라피’가 일본에 등장
 - 오사카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애완견 등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르는 ‘애니멀 테라피’ 수업을 도입키로 했음
 - 대인 관계에 문제가 있어 취업이 어려운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취업 지원 및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적당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놀고먹는 청년 백수) 방지책의 일환으로 주목을 끌고 있음
 - 올 10월부터 매주 1회 실시되며 교사들이 실제로 개를 교실에 데리고 들어가 학생들에게 친화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함
- 애니멀 테라피란 동물을 통해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법으로서, 1970년대 후반부터 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동물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공동 연구하고 있음
 - 미국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 아동의 행동 및 학습 발달, 즉 학교 및 사회 적응도가 높은 상위집단과 그렇지 못한 하위집단 간에 나타난 가장 큰 요인이 부모의 소득, 교육, 학력, 도덕성, 사회적 지위 등이 아닌 바로 ‘애완동물을 키우느냐의 여부’였음. 상위집단의 89%, 하위집단의 30%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었던 것임
 - 정신적, 심리적 효능뿐만 아님. 동물과 함께 하면 엔돌핀이 분비되어 심장질환, 우울증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음.

□ 회원제 병원(Subscription Hospital)

- 베이붐 세대의 풍요와 보건 분야의 쇠퇴 때문에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설 의료기관이 생길 것이라고 미국의 마케팅 전문가 페이스 팝콘이 전망하고 있음
 - 이들 기관들은 코넬(Cornell)이나 마요 클리닉(Mayo Clinic, 미네소타에 본부를 둔 의료기관), 메모리얼 슬로안 케터링(Memorial Sloan-Kettering, 뉴욕 암센터) 등 현존하는 최우수 의료기관에 의해 브랜드화될 것임
 - 또한 일부 기업가들은 실패한 지역사회 병원을 사들여 이를 회원제 병원으로 만들 수 있음. 현재 문닫을 위협이 많으면서 부유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이라면 회원제로 전환하기 완벽한 조건임

□ 국제 투기자금의 위험성 증대*

- (국제 투기자금의 투자 변화) 최근 국제 투기자금들이 개도국 통화, 예술품이나 골동품 등 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음
 - (개도국 통화에 대한 투자) 2004년 이후 달러 가치를 받쳐왔던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시장참여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와 수익률을 높이고자하는 국제 투기자금이 증가하고 있음
 - (예술품 및 골동품 투자) 뉴욕 월가의 증시 자금을 중심으로 예술품이나 골동품에 대한 투기자본이 집중되고 있음
 - (북한 채권 투자) 1970년대 중반 이후 거래가 끊어졌던 북한 채권을 매입하는 국제 투기자금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 채권의 가격은 액면가의 1/5 수준으로 평상시의 2배 이상 상승함
 - 북한 채권 투자 원인: 만일 북한이 붕괴될 경우 한국이 북한 채권을 떠맡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임
- (문제점) 만일 국제 투기자금이 원금을 까먹을 정도로 손실을 보게 될 경우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을 불러일으켜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음
 - (국제 투기자금의 투자 손실 보전)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국제투기자금에 대해 고객이 최후의 통첩(Margin Call)을 하게 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제 투기자금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는데 이 때문에 국제 투기자금의 급격한 투자 손실 보전 과정에 돌입하게 됨
 -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이때 국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면 신용 경색(credit crunch) 현상이 일어나면서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와 동시에 국제금리가 인상 국면에 접어든다면 세계 경제가 침체할 수도 있음
- (시사점) 국제 투기자금들이 가장 위험이 높은 자산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국내 금융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국제 금융 시장의 교란에 대해 예방적이고 선제적 차원에서 정책 당국과 시장참여자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 글은 『한경비즈니스』(2005.01.30)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과시적 소비

‘명품 바람’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던 적이 있다. 왜 사람들은 명품에 열광할까? 기능이 우수해서? 디자인이 좋아서? 아니면 희귀해서?

경제학자 톨스타인 베블렌(Thorstein Veblen, 1857~1929)이라면 ‘과시적 소비’라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풀었을 것이다. 1899년 그의 저서 『유한계급론(Theory of Leisure Class)』에는 ‘사회학적 상상력’(sociological imagination)으로 가득찬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과시적 소비’이다. 이 책의 1973년판 서문을 쓴 갈브레이드는 “이 책을 적어도 한 번이라도 읽지 않는 사람은 그다지 많은 책을 읽었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이 책을 격찬했다.

베블렌은 소비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사회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측면에 주목한다. 즉 소비에는 남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막대한 부를 소유한 것만으로는 사회적 명성을 얻기 어렵다. 어떤 식으로든 바깥으로 드러내 보여야 한다.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력을 통한 우월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과시적 유한’(Conspicuous Leisure)과 ‘과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인 것이다.

과시적 유한

과시적 유한이란 자신이 노동할 필요가 없음을, 노동과 무관한 존재임을, 즉 유한계급(有閑階級)임을 과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유한(leisure)이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린다는 뜻이 아니라 생산적인 일과는 무관하게 시간을 쓴다는 뜻이다. 즉 시간의 비생산적 소비를 말한다. 생산적인 노동에 시간을 들이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과시적 유한이란 자신이 스스로 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음을 입증하는 수단이다. 즉 자신이 게으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금전적 능력의 증거이다.

그런데,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 유한계급은 자신이 보다 확실한 유한계급임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도 유한을 허락한다. 여기에는 가족은 물론, 집사나 하인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 가령 부유층 유한계급의 부인과 딸은 자신이 유한하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콜셋으로 몸을 졸라매고, 본네트 모자를 쓰고, 하이힐을 신고, 손톱은 길게 기른다. 거동이 불편할수록, 노동이 곤란할수록, 자신의 유한성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유한은 자신을 향한 유한이기보다는 유한을 허락한 사람의 유한을 빗내기 위한 ‘대리적 유한’(Vicarious Leisure)에 불과하다.

‘과시적 소비’

과시적 유한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면, ‘과시적 소비’는 ‘금전’을 낭비하는 것이다. 유한계급은 자신이 이 계급에 속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아낌없이, 또한 헛되게 소비하는데, 이것이 바로 ‘과시적 소비’이다. 소비가 한 개인의 ‘위세’를 떨치는 데 공헌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쓸데없는 물건’에 쓰여져야 하며, 바로 쓸데없는 데 돈을 쓴다는 사실이 바로 위세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유한계급의 과시적 소비는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확장된다. 가족들까지 과시적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보다 더 여유가 있다는 우월감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들의 소비는 ‘대리적 소비’(Vicarious Consumption)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소비의 목적이 자신의 충족한 생활을 증진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출을 통해서 주인의 금전상의 명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성을 잃는 이성적인 동물이다.”

- 오스카 와일드(1854-1900) : 아일랜드의 작가, 평론가